순창군이 문화 불모지에서 문화향유 우수도시로 우뚝섰다.

순창군, 문화향유도시 '우뚝'

전국 상위 10개 자치단체로 선정… 도서관등 문화시설 증가 결실

순창군이 문화 불모지에서 문화향유 우수도시로 우뚝섰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28일 발표한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순창군이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지수는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발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 향유 등 4대 분야에서 총 27개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문가 들이 참여해 공신력이 또한 높다.

순창군은 문화정책, 문화향유 등 4대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상위 10개 군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문화지수 우수도시 선정은 순창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순창은 수도권에서 거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구나 산업시설 부족으로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순창군은 황숙주 군수 취임 후 지역문화 진흥을 군정 핵심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문화융성 원년의 해로 선포할 만큼 군민문화 향유에 대한 황군수의 의지는 강하다.

실제 황군수 취임 후 순창에는 군립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작은목욕탕 등 문화향유 시설이 대폭 증가됐다.

영화관은 개관 7개월만에 누적관객 3만명을 넘어섰고 군립도서관은 다양한 인문학강좌를 통해 인문학 부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사랑방으로 인기가 높고 미술관도 다양한 전시회와 미술교실 운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향토관에서 열리는 드림필 오케스트라 공연과 일품공원에서 주말이면 열리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공연도 군민만족도가 높다.

이외에도 군은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문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군수는 "순창군이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문화지수 우수도시 10위안에 포함된 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면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 만족도도가 높아야 하는 만큼 앞으로 군민이 원하는 문화기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운영실태 · 성과 비교분석 등 의견수렴

민선 6기 임실군 농업정책의 핵심공약인『활력 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실현을 가시화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29일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임실군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흥식 군의회의장, 지역농협장, 임실군 희망농업품목 및 정책 연구회와 농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근 우리나라와 주변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로 상호간 규제 철폐에 따른 앞선 기술력과 대량 생산체계 및 새로운 물류시스템, 막대한 자본력 등을 앞세워 우리의 농업시장을 급격하게 잠식하고 있어 우리의 농촌과 농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세미나는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생산·선별·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에 노력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현재 운영실태를 되짚어 보고 전국의 우수사례 발표, 임실군 산지유통센터의 성과와 타시군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전문 패널들의 토론 및 관심 있는 많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첫번째 주제발표(하태중 센터장)에서는 "임실군 산지유통센터가 일부 품목의 조직화 미흡으로 매출이 감소되었지만 복숭아, 딸기, 고추, 오이, 토마토 등 대다수 품목이 성장 추세에 있어 향후 지속적인 품목 확대 및 조직화로 규모화를 꾀해 임실군의 모든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두번째 우수사례 발표는 "산지유통센터인 통합마케팅조직이 발전하려면 생산자 조직화 교육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에 따른 조직간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세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임실군 산지유통센터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로서 지역단위의 통합마케팅협의체 강화 및 품목의 고품질화, 선도품목 및 농가관리의 지속적인 강화"와 "품목별 기초농가 조직의 수준에 따른 육성전략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과 농협, 농민, 산지유통센터간의 상호 상생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통합유통망을 조직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상반기 농업인복지 · 소득안전망 확충 '성과'

학자금 · 농가도우미 · 급식 등

남원시는 2016년 상반기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남원시에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증가,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병행에 따른 농작업 부담, 빈번한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등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농촌생활 유지를 도모하고자 올해 10개 사업에 15억 8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각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다.

분야별로는 농업인학자금 265명, 농업인 안전보험 4909명, 사고·질병농가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17명, 농번기 공동급식 11개 마을,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853명, 농작물 재해보험 4548ha 가입 등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2015년 2,507ha에서 4,548ha로 가입을 대폭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재산손실에 사전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금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번기공동급식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바쁜 영농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은 물론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주민화합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농촌재능나눔 사업도 농촌어르신 돌봄과 자전거 수리, 장수사진 촬영, 세탁봉사, 놀이마당 공연, 건강체조 등을 통해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남원시는 농업인 복지와 소득안전망 분야 세부사업별로 상반기 추진 실태와 성과 등을 분석하여 하반기에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안내를 통해서 수혜 대상 농가를 늘려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 복지와 소득보전을 연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

황숙주 순창군수가 민선 6기 후반기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민선 6기 2차년도 제5차 협의회를 열고 황숙주 군수를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황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때 전북도내 1위의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이다.

황 군수는 "민선 6기 반환점을 넘어서고 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민선 6기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군수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14개 시군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하고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1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은 재정과 정치부문에서 완전한 지방차치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지방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금과파출소장, 응급환자 신속조치 구조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금과파출소(소장 홍한표)에서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조치하여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55분경 임순여객 운전기사가 버스를 파출소 앞에 정차하고 풍산면 소촌에서 승차한 손님이 방축에서 내려야 하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이상하다는 신고를 하여 파출소장이 신속하게 버스에 들어가 확인한바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토와 함께 분비물을 흘리며 의자에 기댄 채 앉아있던 60대 남자를 발견 위급한 상황임을 판단 즉시 119 구급차를 요청했다.

그러나 순창읍에 있는 구급차는 다른 현장에 출동하였고 다른 구급차는 쌍치면에서 와야한다고 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환자가 있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순창터미널로 가도록 하고 가는 도중 의료원 응급차량을 터미널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환자가 지연시간 없이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는 응급차량을 통해 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 후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금과파출소장이 상황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기지를 발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식품사고 예방위한 위생 지도 · 점검

다소비 식품 제조 · 판매업소 대상

남원시는 여름철 기온상승, 휴가철 나들이 증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와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 29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대비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음료류·얼음·면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패스트푸드점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주변 식품접객업소 ▲하절기 다소비 식품인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조리·판매업체이다.

또한,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판매되는 냉면육수, 콩 국물, 빙수, 식용얼음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영업장소외 영업행위 등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때 이른 고온현상과 큰 일교차로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 데에 조금만 소홀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함께 평소에도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농기센터 농자재 자가 제조 활용기술 교육

임실군은 친환경농업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자재 자가 제조 활용기술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8일 관내 친환경농업 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업개발 실증시험소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과수원에서 피해가 심한 흑성·적성·흰가루병에 효과가 높은 유황조제법을 비롯한 진딧물·응애방제 오일제조법, 총채벌레방제 독초액 만들기 등 병해충제재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땅심을 높이는 유기퇴비제조법, 청초, 인분, 음식물 액비제조법, 토착 미생물 배양과 사용법 등 상세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실시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직접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약은 일반화학농약에 비해 치료 및 방제효과는 다소 떨어지나 예방효과가 탁월해 유황, 기계유제, 석회보르도액, 아인산염 등 친환경농업 농가는 물론 일반농가들도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시중에서 구입한 친환경재제는 가격이 높지만 직접 제조해 사용하면 일반 농약대비 7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농가 경영비 절약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재배는 일반포장에 비해 병해충 피해 및 생산량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일반농약이나 비료에 비해 가격이 높아 생산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생산비 절감과 적기방제를 위해 농가 스스로 천연농약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를 위해 영농자재를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광역단지조성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로컬플러스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올해 2/4분기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가 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박우정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상호 고창군의회 의장 등 통합방위 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신설된 부안해양경비안전서를 신규로 포함하는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재조정 안을 상정 의결했으며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 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8월 22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유관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박우정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는 시점에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재조정하고 지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우리 지역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지역 치안협의회 가져

'임실지역 치안협의회'는 임실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개최됐다.

이날 지역치안협의회는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흥식 군의회의장, 이후신 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 및 정신질환자 응급보호조치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범죄 프로파일러의 정신질환 및 알콜중독 범죄 심각성 및 예방책에 관한 강의를 청취하고 기관별 제안 및 협의를 통해 '여성이 안전한 임실 만들기'에 한 뜻을 모았다.

심민 위원장은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등 묻지마식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살피는 치안행정이 중요시 된다."며, "범죄 없고 안전한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민·관·경이 협력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보건의료원 10명 퇴임식

순창군은 29일 3층 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퇴임식을 갖고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마을을 전달했다.

퇴임하는 공무원은 보건의료원 김영자 계장외 9명이다.

이날 퇴임식에는 가족과 군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공직에 헌신한 분들과 석별의 정을 나눴다.

또 퇴임하는 공무원들에게 황숙주 군수가 공로패와 꽃다발 등을 수여했다.

황군수는 "오늘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분들 모두 대단히 자랑스럽다" 며 "앞으로도 순창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구강보건사업 '호응'

임실군은 구강건강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 및 장병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군인들은 구강관리가 미흡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및 각종 치과질환 감염이 우려됨은 물론, 일반 성인남성 흡연율보다 높아 구강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9일 국토방위 및 지역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35보병사단 장병 3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해 구강건강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올바른 칫솔질 및 치주질환 관련 구강보건교육과 충치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구강 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치아관리법 인식제고 및 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구강 건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